

# 나라는 주체 의식이 사망의 영이다

영 자체가 생명이요, 사람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인 영이에요. 하나님인 영이 사람의 속에 있으느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인 자식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인 자식인 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옳은데,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사람을 만들고자 마귀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인 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면서 마귀가 발 불일 곳이 없어져요. 마귀는 철천지원수 시간이 하나님인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인고로 마귀가 사망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사자귀신이에요. 그 사자귀신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인간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이요, 6000년 묵은 붉은용마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식보고 하나님이라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 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죠?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죠? 학문을 논하는 주체가 사람인데 사람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말 자식은 말이요,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죠? 그레 안 그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만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면 하나님인 자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고로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없어요.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었는데 인내천 사상이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인 신이 함께하는 할아버지인고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라고 불러왔죠? 오늘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불렀는데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마귀예요. 왜 그려나하면 주체 영이 마귀인고로 주체 영이 마귀라면 주인 공이 마귀라는 얘기죠? 사람의 주인공이 마귀니까 사람이 마귀일 수밖에 없죠?

## 마귀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대로 하나님인 줄 알았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6000년 전에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인 형상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인 양심으로 이 인간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양심이 나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6000년 전이에요.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하나님인 자식들을 전부 죽여 왔어요. 살려 왔어요?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영이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때에는 영혼이 천당 간다고 속이죠? 죽어서 천당 가서 영혼이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꼬시고 이와 같이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인 영을 죽이는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야. 유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죠?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나이만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얼마나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구세주 조희성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죠?

## 마귀가 죽을 마음을 주는 거다

마귀 새끼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고 속이죠? 죽어서 천당 가서 영혼이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꼬시고 이와 같이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인 영을 죽이는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야. 유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죠?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나이만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얼마나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먼저 쥐기하고 그다음에 지쳐서 쓰러질 때에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주 진악한 신이고, 마귀가 악한 신인고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다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은 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 있어요, 죽은 사람의 피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자식 속에 있죠?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피로 자식이 만들어지죠? 부모의 피가 자식 속에 있죠? 자식 속에 그 부모의 피가 있듯이 오늘날 자손만대로 최고의 조상의 영도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게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널리 전파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레 안 그레요?

##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곳이 내세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고, 그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있는 고로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할머니 영이 손자 속에 산다면 내내 내세(來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말로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 라고 성경에도 쓰여 있죠? 왜 어둠의 세상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야 아무것도. 아는 거라곤 그저 밥 먹고 땅 쌓는 것밖에 몰라. 아는 거라곤. 이 사

람 말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 현재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인 도로 되어야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는 거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간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쓰여 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령이 하나님인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인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인었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인었으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마음 품지, 사람이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레요? 너희들은 하나님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2000년 11월 14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9) 가나안 세겜 땅에 돌제단을 쌓는 야곱

### (9) 가나안 세겜 땅에 돌제단을 쌓는 야곱



야곱 속의 하나님을 죽이려는 공중신(空中神) 마귀

시므온과 레위의 살육 (창세기 34:25) \_ 'The slaying of the Shechemites.' James Tissot 作

에서가 남쪽 세일 땅으로 돌아간 후, 야곱은 동편 압복강을 건너자마자 숙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 30킬로미터쯤에 있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성읍 앞에 있는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 밭에 장막을 치고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엘로하 이스라엘(El Elohe Israel)'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압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세겜 땅에 돌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녘에 마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엘 엘로하 이스라엘'이라는 돌단을 세워 기념한 것입니다.

###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의 아들들이 손에서 백 크시타에 삼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하이스라엘(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이라 불렀더라

디나의 유혹 \_ <https://jerusalemchannel.tv/the-tragedy-of-jacobs-daughter-dinah/>

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여기 세겜에 단을 쌓고 새벽마다 킷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기며, 내가 아브라함을 없앨 목적으로 가나안 전역에 걸쳐 흉년을 들게 한 적이 있지. 이번에도 그의 손자 야곱이 세겜에 제단을 쌓을 줄이야! 야곱과 그의 기족을 물살시키기 위해 음란의 몇을 사용해야지!" 하고 마귀는 심여 년의 세월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 창세기 33장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의 아들들이 손에서 백 크시타에 삼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하이스라엘(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이라 불렀더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97세에 밧단아람을 떠나 이곳 세겜에 머문 지 십여 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의 93세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는 이제 열네 살이지만 조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가 이방인들처럼 약한 옷차림을 하고 세겜 땅에 사는 자기 또래의 여자를 보러 집밖으로 나갔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을 점령하여 디나에 대한 음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겜은 디나의 옷차림을 보고 신랑을 구하는 동족의 처녀로 알고 끌어들여 통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나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소녀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들이 저지른 일로 야곱을 찾아뵙고 그에게 정중히 사

과하였습니다.

"나의 아들 세겜과 당신의 딸 디나를 서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다면,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몸값과 레위의 심령을 점령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22세의 시므온과 21세의 레위는 마귀가 주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은 지 39일째 되던 날에 신음하고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쳐 모조리 죽이고 세겜의 집에 서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물살당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49장 5~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같은 친애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찌여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찌여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밭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거슬러 말대꾸까지 하는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의 누이를 창녀같이 취급한 자를 가만들 수 있어요?"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